

# 『일선골계화(日鮮滑稽話)』 연구

## - 원전의 발굴 소개와 변용(變容)의 의미 탐구 -\*

노 혜 경\*\*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선어소설 계열인 『일선골계화』(「승주문답」)를 새로 발굴하여 그 원전이 일본의 라쿠고 「곤약문답」이라는 것을 밝히고, 「곤약문답」과 「승주문답」의 비교를 통해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일선어소설은 식민지 시기에만 존재하던 특수한 형태의 소설로 동일한 문장을 조선어와 일본어로 병기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승주문답」은 원작 「곤약문답」의 기본 줄거리를 골자로 하면서도 구성, 내용 및 작품의 기조(基調)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승주문답」은 구연 예능으로서의 특징이 약화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소설에 가까운 형태를 갖추게 된다. 내용면에서는 원작의 유머가 대폭 삭제된 반면 보은(報恩)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다소 교육적인 작품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작품의 변모는 일한대역이라는 「승주문답」의 독특한 표기방식 및 책의 체제(體裁)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승주문답」의 주석은 일본어 표현 및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문장 부호에 관한 설명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표기면에서도 하나의 일본어 표현을 직역과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 두 가지로 번역해 놓는 등 언어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시도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의 분석을 통해 「승주문답」이 일본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번역, 변안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선어소설의 특성 및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사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다중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었다.

[주제어] 라쿠고, 일선어소설, 곤약문답, 승주문답, 현공림, 번역, 변안, 골계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승주문답」의 조선어와 일본어 본문 비교 |
| II. 「곤약문답」과 「승주문답」의 본문 비교 | IV. 마무리 : 라쿠고의 변안과 변용의 의미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1503).

\*\*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 nhkyoung@yonsei.ac.kr

## I. 머리말

본 논문의 목적은 일선어소설(日鮮語小說) 계열의 작품 가운데 하나인 『일선골계화(日鮮滑稽話)』를 새롭게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하고,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 일선어소설은 식민지 시기에만 존재하던 특수한 형태의 소설이다. 일선어소설의 외형상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문장을 조선어와 일본어로 나란히 병기한 점이다. 일선어소설은 한 때 대중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실물은 아주 소수만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작품은 일선어신소설(日鮮語新小說)을 표방한 현공렴(玄公廉)의 작품 『동각한매(東閣寒梅)』(1911)와 『죽서루(竹西樓)』(1911) 단 두 편뿐이다. 이 두 작품은 현재 학계에 유통 중인 『한국개화기문학총서』(아세아문화사, 1978)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이번에 본 연구자가 정리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일선골계화』는 그 소장처가 미국 하버드대학의 엔칭연구소 도서관이다. 『일선골계화』는 1915년 8월에 초판이 발행된 작품으로 판권장에는 저자 겸 발행자가 현공렴으로 되어 있고, 발행소는 대창서원(大昌書院)과 보급서관(普及書館) 두 곳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공렴은 한말 개화기의 대표적인 출판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본 연구자는 엔칭연구소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선골계화』를 검토한 결과, 이 작품이 일본의 대표적 서민 화예(話藝)인 라쿠고(落語) 작품 「곤약문답(蒟蒻問答)」을 저본으로 삼아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단행본 『일선골계화』는 그 안에 수록된 이야기의 목록(目錄)을 「승주문답(僧主問答)」(一), (二), (三)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작품 「곤약문답」이 조선의 골계담 「승주문답」으로 변화한 셈이 된다.

기존의 대부분의 비교문학 연구가 일본의 대중소설이 식민지 시기 조선의 대중소설로 번역 혹은 변안되는 과정에 착안한 것과 달리,<sup>1)</sup> 본 연구는 일본의 라쿠고가 소설의 형태를 띤 골계담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밝힌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구별된다. 더구나, 이번에 발굴 소개하는 『일선골계화』는 일종의 일한대역(日韓對譯) 표기를 활용한 일선어소설 계열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작품의 줄거리 변용 연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표기법의 대조 연구이다. 『일선골계화』를 토대로 한 일본어와 조선어 표기의 비교 및 대조 연구는, 식민지 시기 조선인을 상대로 한 일본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천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한일 근대문학 비교 연구의 새로운 영역 확장 및 새로운 전기 마련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라쿠고 「곤약문답」과 골계담 「승주문답」, 이 두 가지 텍스트는 기본 서사는 공통되지만 작품의 기조, 구성, 내용 등에서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곤약문답」과 「승주문답」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공렴의 번역 및 변안의 방법을 해명하고 작품이 변용되는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승주문답」의 일본어 본문과 조선어 본문의 비교 고찰을 통해, 라쿠고가 조선의 교육적 내용을 담은 골계담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밝혀내고자 한다.

1) 번역의 사전적 정의는 ‘한 나라의 말로 표현된 문장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일’이다. 변안은 ‘외국 작품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풍속·지명·인명 등을 자기 나라의 것으로 고쳐 개작하는 일’이다. 그러나 근대 초기 한국 문학사의 전개 과정에서 번역과 변안 행위의 경계를 엄밀하게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번역을 문장의 언어 자체를 바꾸는 단순한 작업으로, 변안은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의도가 개입되는 복합적인 작업의 의미로 용어를 사용했다.

## Ⅱ. 「곤약문답」과 「승주문답」의 본문 비교

라쿠고는 본래 정본 텍스트가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책의 형태를 갖춘 라쿠고는 라쿠고가(落語家)가 구연한 것을 속기(速記)한 속기본이다. 예를 들어 ‘산유테 유자(三遊亭遊三) 구연, 사카이 쇼조(酒井昇造) 속기’라는 식으로 구연한 사람과 속기자를 밝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곤약문답」은 승려출신 라쿠고가인 3대 하야시아 쇼조(林屋正藏)<sup>2)</sup>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이미 17세기 후반 『잇큐칸토이야기(一休閑東咄)』(1672)나, 엔포(延宝)연간(1673~1681)에 나온 『잇큐제국이야기(一休諸国物語)』, 죠쿄(貞享)연간(1684~1687)의 『당세이야기책(當世はなしの本)』 중 「도박꾼이 장로가 된 이야기(ぼくち打長老に成事)」 등에 보인다.<sup>3)</sup> 뿐만 아니라, 나가노현(長野県) 시모이나군(下伊那郡)을 비롯한 일본 각지에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곤약문답」은 하야시아 쇼조의 순수한 창작이라기보다는 전해 내려오는 앞의 원화(原話)들을 바탕으로 하야시아 쇼조가 승려 시대의 체험을 섞어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sup> 「곤약문답」은 라쿠고 중에서도 중심 내용을 몸짓 연기로 표현하는 ‘시카타바나시(仕方話)’이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본이나 음원으로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인지, 대본이나 음원이 다른 라쿠고 작품에 비해 많이 나와 있지 않다. 1915년 8월 이전에 출간된 「곤약문답」의 구연 속기본 중 현재 열람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번호	구연자	속기자, 편집자	제목	수복지명	발간연도 및 출판사
①	三遊亭寶遊	原田眞一 편	蒟蒻問答	三遊亭一口演説	1890 飯塚八太郎
②	橘家圓喬	명시되어있지 않음	蒟蒻問答	円喬落語会	1908 三芳屋
③	桂派連中	松廼屋主人 편	蒟蒻問答	桂派落語選	1911 文樂堂書店
④	三遊亭遊三	加藤由太郎 속기	蒟蒻問答	遊三落語全集	1915 三芳屋書店

위의 속기본들 중 가장 오래된 ①은, 「곤약문답」의 중심서사와 내용이 많이 달라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논문에서 「곤약문답」은 2대 산유테 유자(三遊亭遊三)가 구연하고 가토 요시타로(加藤由太郎)가 속기한 속기본 ④(이후 유자본으로 약칭)를 기본 텍스트로 하고 ②(엔쿄본으로 약칭)와 ③(가쓰라본으로 약칭)을 참고하여 대조 검토하였다.<sup>5)</sup> 산유테 유자의 「곤약문답」 구연 속기본은 「승주문답」이 출간되기 이전에 간행된 속기본 중 가장 널리 유포된 것으로 「곤약문답」 이야기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서사를 충실히 따르고

2) 에도 후기 라쿠고가로 1839년에 예명 하야시아 쇼조를 세습하였다.

3) 延廣眞治, 『落語の鑑賞201』, 新書館, 2002, 70쪽.

4) 桃原 弘, 「解説」, 『志ん生古典落語5 富久』, 弘文出版, 2002, 251쪽.

5) 본 논문에서 「곤약문답」의 본문 인용은 기본적으로 『유자라쿠고전집(遊三落語全集)』(유자본)에서 인용하였다. 유자본과 엔쿄본, 그리고 가쓰라본은 중심 줄거리나 주제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엔쿄본과 가쓰라본의 중요한 부분은 각주를 달아 표시하였다.

있다. 이 속기본은 「승주문답」이 출간된 1915년에 「승주문답」에 몇 달 앞서 출간된 것이다. 「승주문답」과 비슷한 시기에 유포된 것이므로 번역자가 번역시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라쿠고가 그 때 그 때의 시대상이나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산유테 유자의 속기본과 「승주문답」은, 일본과 조선의 당시의 시대상, 사회상을 비교하는데 적절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sup>6)</sup>

라쿠고는 구연자가 연행(演行)하는 공연 예능이다. 또한 같은 사람이 구연해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변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텍스트를 대상으로 비교와, 그 결과 얻어진 미세한 차이로부터 의미를 도출해내는 방식에만 치우치면 자칫 확대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간의 세밀한 대조, 비교 연구와 더불어, 원작 「곤약문답」을 구성, 주요 인물의 조형, 주제의 구상과 같은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다면적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곤약문답」과 「승주문답」을 비교하면 우선 구성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곤약문답」의 서두 부분 즉, 「마쿠라(枕)」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물소개와, 배경 설명 등이 「승주문답」에서는 삭제되었다. 라쿠고는 일반적으로 「마쿠라(枕)」, 「본문(本文)」, 「오치(落ち)」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곤약문답」도 이 구성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마쿠라는 중심서사인 본문에 들어가기 전의 이른바 도입부이다. 「곤약문답」의 마쿠라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종종 이 문답에 대해 말합니다만, 팔종구상으로 나뉘어도 근본을 따지면 매 한가지 불교의 문답이라는 것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를 가지고 센베라니 이게 대체 무엇이며, 한 개를 가지고 만주라는 것은 무엇이나, 이것이 하나의 문답으로 본래 사도 지방 쓰카하라에 있던 것이 쓰카하라 문답, 텐쇼 노부나가 시절 아즈치에 있던 것이 아즈치 문답, ……아오야마 하쿠니마치에 있던 것이 스즈키몬도(鈴木主水), 치약이 다이아몬드, 물론 스즈키몬도나 다이아몬드는 문답에 안 들어가는 합니다만……<sup>7)</sup>

6) 히로세 카즈오는 라쿠고가 지닌 동시대성을 “라쿠고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것은, 라쿠고라는 예능이 “동시대의 관객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며, 관객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廣瀬和生, 『現代落語の基礎知識』, 集英社, 2010, 144쪽.

7) 원문은 다음과 같다. “ヨク此の問答といふ事を申しますが、八宗九相に分れて居りましても、元を問へば皆一つで、佛の方の問答と云ふものに這入るのさうでございませぬ、もう皆さんも御案内の通り一枚の物を以つて煎餅とはこれ如何に、一個を以つて饅頭といふが如しといふ、これが一つの問答で、抑も佐渡國塚原にありましたのが塚原問答天正信長の時安土にありましたのが安土問答、紀州にありましたのが山伏問答、品川は東海寺のが沢庵問答、青山百人町にありましたのが鈴木主水、歯みがき粉がダイヤモンド、尤も鈴木主水や、ダイヤモンドは問答の中には這入りませんけれども……” 「곤약문답」, 『遊三落語全集』, 1915, 三芳屋書店, 169~170쪽. 「곤약문답」의 마쿠라는 속기본에 따라 다소 내용에 차이가 있다. 엔쿄본의 마쿠라에서는 불교가 일본에 전해진 무렵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여 젠코지(善光寺)가 창건되고 거기에서 문답이 시작되기까지의 역사를 상세하게 들려준다. 엔쿄본 도입부에서 “是れを善光寺と申し今でも御老人方が怪談廻り杯申して信仰を被爲て在つしやい升是れから八宗九宗と別れました原因を詮せば一ツ……其處で佛の方へ問答と云ふことが始まりましたが……佐渡國塚原に有りましたのを塚原問答”의 “是れから八宗九宗と別れました原因を詮せば一ツ……其處で佛の方へ問答と云ふことが始まりましたが……佐渡國塚原に有りましたのを塚原問答” 이하는 유자본의 마쿠라와 거의 유사하다. 한편 가쓰라본의 마쿠라는 다른 속기본에 비하면 분량도 짧고 각지에 전하는 명물 문답에 관한 간단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징적인 것은 “一体禪家では、能く問答を致しますが、此問答に負けると、裸で寺を追ひ出されるんださうで、其の代りに勝てば其寺を乗り取つて雲水から直ぐと住寺になれるのださうであります”라며 중심서사에서 문답을 주고받는 행위가 내포하는 의미를 도입부에서 설명하는 점인데, 다른 속기본에는 없는 내용이다.

위 인용문에서 구연자는 “종종 이 문답에 대해 말합니다만”이라고 청중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운을 떼 뒤, 이어서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고 청중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청중과 하나의 구연의 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구연자가 직접 청중에게 말을 거는 방식, 가타리카케(語りかけ)는 구연 예능인 라쿠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라쿠고의 범주 안에서 보면 마쿠라의 가타리카케는 주로 등장인물간의 대화로 서사가 전개되는 본문과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위의 마쿠라 부분에서는 본 서사의 중심 소재인 ‘문답’이 불교에서 유래하였다는 것과 이어서 각지에 전해지는 명물 문답을 사례로 들어 보여준다. 이렇게 구연자가 ‘문답’에 관한 화제를 통해 청중에게 본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예비지식을 심어주고 결과적으로 청중을 자연스럽게 중심서사로 이끈다. 이 마쿠라에 이어서 주요 등장인물, 배경 등이 소개되는데 이것이 본문의 도입부에 해당한다.<sup>8)</sup>

하치오지 어느 곳에 빈 절 한 채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주지가 없었습니다. 이 절 근처에 곤약 장사를 생업으로 하는 로쿠베라는 대단히 부지런하고 남을 돌보아주기 좋아하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절에 주지가 없으면 안 되지, 어딘지 모르게 부족해, 어떻게든 중 하나를 찾아내서 주지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이 곤약장사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하치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 완전히 중으로 변신한 하치조는, 처음에는 제법 점잖게 지냈으나, 점점 본색을 드러내 지금은 승복을 입은 채로 태평스럽게 사발술을 마시는 꼴이 여간 가관이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치조 「어이, 곤스케, 곤스케/곤 「무슨 일이지요/하 「잠깐 이리 오게나. 아무래도 좀 그러네. 이 절만큼 별 볼일 없는 절도 없지, 무엇보다 내가 온 후로 장례라는 것이 없어, 불공도 한 번 없어서 실은 용돈도 궁하단 말일세./곤 「스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요. 장례가 있으면 용돈이라도 몇 푼 생길 텐데, 그게 없으니 경기가 안 좋구먼요.»

위 인용문에서는 “하치오지 어느 곳에……그러던 어느 날”이라고 곤약장사 로쿠베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하치조가 로쿠베의 주선으로 절의 주지를 맡게 된 경위와 그 후의 하치조의 한심한 작태가 구연자의 입을 통해 묘사된다. 그런데 이 본문의 도입부가 「승주문답」에서는 삭제되고, 아래와 같이 하인과 주지승의 대화로 작품이 시작된다.

8) 「곤약문답」의 다른 속기본에서도 마쿠라 다음에는 보통 인물 소개가 이어진다.

9)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八王子の或る在方に一軒の空寺がありまして、久しく住職といふものがございませぬ。するとこの寺の片辺りに、蒟蒻を渡世に商ふて居ります六兵衛さんといふて至つて健な而して世話好きなお方が住んで居りました、ところがお寺に住職の無いのは不可ないものだ、何となく物足りない、どうかして一人和尚を見付けて住職にしたい住職にしたいと思つて居りましたが、丁度この蒟蒻屋の家に厄介になつて居る八蔵といふ人があります、<中略>八蔵スッカリ和尚になつて仕舞いましたが、なつた当時こそ大層温和くして居りましたけれど、段々ボロが出て参りまして、今では長袖を着て居ながら胡坐を組んで茶碗酒といふ有様でございます。或る日の事で、八「オイッ、權助や權助 權「ファー、何でがす 八「チョット此處へ來ねへ何うも何んだな、此所の寺位へ不景氣な寺つたらねへ、第一俺が來てから葬禮といふものがなし、法事といふものは一つもねへし、實は俺ら小遣錢にも困つたんだがね……權「お前さんばかりでねへだよ、俺アだつて其うだ、葬禮があつたら、若干へけの小遣にはなるだのが、それが無へだから不景氣でがすな” 「곤약문답」, 170~171쪽.

## 日鮮滑稽話

著作者 玄公廉

○僧主問答(一)

●승의 답문(一)

下男「ア、何ントネ住持様ヨ、此頃ノヤウニ、回向モ來ネバ、法事一ツ頼ミニ來ネ ヘジャア、明日カラ飯食フ事サヘ困難カンバイナア……」

하남 「어허, 참었전단말이요, 신임아, 요식하갓치지도들지안코, 불공하나 허러드러오지 안히션 툇일 브뜸은밥먹기도 어렵겟지아……」<sup>10)</sup>

住 「ソウトモソウトモ俺モ去年門前ノ餅屋ノ權兵衛サンノ厄介デ此寺ヘ、モグリ込ンデ住持顔ハ、シテ居ルガ此頃ノヤウナ暇ヲクラッチヤア、寢酒一杯満足ニ飲ム事モ出ネヘ」

주 「그리코말-고々나도작년에문암씩입권침지령감의쥬션으로이절에기여드러와셔쥬장인테는호고잇지문요식갓치한가호기만호야셔는, 밤춤스술홀잔넉키먹을스수도업셔」

위의 인용문을 보면 「곤약문답」에서 구연자의 입을 통해 하치조가 주지를 맡게 된 경위를 밝혔던 것을, 「승주문답」에서는 등장인물 하치조 스스로 “나도작년에문암씩입권침지령감의쥬션으로이절에기여드러와셔쥬장중인테는호고잇지문”이라고 주지가 된 사연을 슬쩍 언급한다. 이와 같이 구연자—소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술자—의 존재가 작품 전면에서 사라지고 등장인물에 내재화되는 서술의 변화는 구연 예능인 라쿠고가 소설의 형태에 가까운 골계담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작의 마쿠라 및 본문의 도입부가 「승주문답」에서 삭제된 것과 더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본문의 지문도 대부분 삭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곤약문답」에서는 절 본당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승 「그렇게 덕이 높으신가, 그럼 인사를」하며 본당에 들어가 보니, 얇은 다다미는 빗물에 썩어 너덜너덜하다. ……그런데 정면에는 선정을 마련하여 그 한쪽에 법의를 걸치고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불자를 쥐고 앉아있는 것은 이 산의 큰 스님……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으로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곤약장사 로쿠베입니다<sup>11)</sup>

위 인용문에서는 “그렇게 덕이 높으신가, 그럼 인사를」하며 본당에 들어가 보니” 이하 수행승의 눈에 비친 본당의 모습이 구연자(서술자)의 시선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때의 수행승과 구연자의 위치 (시점)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데”로 시작되는 로쿠베에 대한 묘사에서 구연자는 “이 산의 큰 스님……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으로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곤약장사 로쿠베입니다.”라

10) 「승주문답」, 『일선골계화(日鮮滑稽話)』, 대창서원/보급서원, 1915, 1~2쪽. 「승주문답」의 본문은 표기의 특징을 보여주어야 하는 본 논문의 특성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원문 그대로 인용했다.

11) “僧 「左様に高德で居らせらるゝか、然らば御免を……」と本堂へ通つて見ると、高麗縁の薄畳は雨洩りのためにボロボロに腐つて居る、……けれども正面には禪定を設けて、その片側の所に法衣を着し、頭には頭巾を戴き拂子を握つて控へたるは当山の大本和尚とは真赤の偽り、何にも知らない蒟蒻屋の六兵衛さんでございます” 「곤약문답」, 185~186쪽.

고 서사 전개상의 중요한 비밀을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밝힌다. 구연자가 서사에의 개입을 통해 청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작품이 구연 예술임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현시적(自己顯示的)인 구연자의 지문이 「승주문답」에서는 삭제되었다. 이것은 구연자의 존재를 전면에 내세우는 마쿠라가 삭제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해야 하며, 「승주문답」에서 구연자의 존재감은 명백히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작품 전면에서 구연자의 존재가 사라진 대신 「승주문답」에서는 철저하게 등장인물간의 대화에 의해서 서사가 전개되는 서술방식으로 변화한다. 위에 인용한 ‘하남’과 ‘주지승’의 대사로 시작되는 「승주문답」의 서두는 이러한 서술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 및 이유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제 4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곤약문답」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내용상의 변화는 원작의 희극적 요소가 대부분 삭제된 점이다. 「곤약문답」은 라쿠고 중에서도 골계(滑稽)에 역점을 두는 ‘곳케바나시(滑稽話)’로 분류된다. 작품에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대목 즉, 구스구리(くすぐり)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곤 「아무래도 촌장집 할머니가 말입니다요/하 「촌장네 할매가 죽을 것 같다고? 촌장집이면 보시도 좀 괜찮겠지, 언제쯤 뺨을 것 같나?/곤 「그게, 엄청 안 좋다는구먼요, 친척이 죄다 모여서 온갖 간병을 했다는데……곤 「그게,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지만, 친척이라는 자가 그러는데, 오늘 아침 꼴까닥……/하 「뭐야 죽었어?/곤 「아니, 나왔다네요/하 「바보같으니라고, 나왔는데 꼴까닥이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어, 정말 어이가 없군<sup>12)</sup>

위 인용문에서 주지 행세를 하고 있는 하치조와 하인 곤스케는 절에 일감이 생기기를 바라며 촌장 댁 노인네 이야기를 한다. 곤스케는 “오늘 아침 꼴까닥……”이라는 표현으로 하치조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는 곧이어 “나왔네요.”라며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대사를 이어간다. 이렇게 담화의 구조상 앞뒤가 맞지 않는 동문서답하는 식의 대사는 웃음을 자아낸다.<sup>13)</sup> 이렇게 서로 미묘하게 어긋나는 대화에 의해 야기된 웃음, 유머는 「곤약문답」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머가 원작의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곤약문답」의 결말부분에서는 얼떨결에 중 행세를 하게 된 곤약장사 로쿠베가 나그네 선승(禪僧)이 던진 선문답을 곤약의 상태에 대한 물음으로 착각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된다. 한편 나그네 선승은 로쿠베의 대답을 심오한 불교의 가르침으로 멋대로 해석하여 로쿠베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해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난다. 결국, 서로에 대한 착각, 어긋남이 웃음을 자아내며 이야기가 매듭지어진다. 「곤약문답」의 곳곳에 삽입되어 있는 등장인물의 동문서답은 웃음

12) “權 「何んでも名主の家の婆アさんでがすがの/八 「名主の婆アが逝きさうだつて、名主の家ならお布施だつて幾らか良からう、何日頃くたばる/權 「それがね、えらく悪かつたゞ、で身寄り中が寄つて種々と看病をしてやつたゞが、……權 「それがね、大きな聲では云はれねへが、親戚の者が云ふには、今朝がたポックリとねゞ……/八 「ナニッ、死んじまつたのか/權 「何アに、直つたゞよ/八 「馬鹿ッ、直つたのにポックリなんて云ふ奴があるかい、どうも仕様がねへな” 「곤약문답」, 171~172쪽.

13) 野村雅昭, 「發話機能からみた落語の談話構造」,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日本文學演劇美術史日本語日本文化』 42,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1996, 23~34쪽.

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중심서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결말에서 보여주는 각각의 극치를 이끌어내는 데 유기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곤약문답」은 작품 전체가 인물 상호간의 착각에 의한 웃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번역 과정에서 원작의 웃음을 유발하는 대목이 삭제된 것은 작품 전체의 구성 및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곤약문답」과 「승주문답」은 인물의 조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라쿠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인간적 약점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점이다.<sup>14)</sup> 「곤약문답」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 행세를 하는 하치조는 지나치게 주색을 탐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하치조는 에도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 나쁜 병-매독-에 걸려 에도에서는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해지자 하치오지(八王子)에 흘러들어와 곤약장사 로쿠베에게 신세를 지게 된다. 그러던 중 마을 절에 주지승이 없는 걸 걱정하던 로쿠베의 주선으로 주지를 맡게 되는데, 주지로 있으면서도 “지금은 승복을 입은 채로 태평스럽게 사발술을 마시는 작태”를 보이며 술을 끊지 못한다. 원작의 곳곳에는 예전의 방탕한 생활을 짐작하게 하는 하치조의 행실이 묘사된다.

하 「절 문 앞에는 소금을 쌓던가 하면 활기를 떨 텐데……/곤 「안 됩니다, 기생집도 요정도 아니니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하 「그래? 그럼 술하고 안주라도 시켜서 분위기를 띄워 볼까/곤 「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절에서는 술이니 안주니 그러 말을 쓰면 안 됩니다.<sup>15)</sup>

위 인용문에서는 신성한 수양의 장인 절에서 유흥장에서나 일삼던 유흥 행각을 벌이려는 하치조의 분별력 없는 행태가 그려지는데 이것이 원작에서는 웃음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하치조는 방탕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좌우지간 술, 안주를 가져와 한번 신명나게 사미센이라도 켜지, 저자거리 하나야의 오미쓰라도 데려오면 떠들썩하겠지”<sup>16)</sup>라며 절에 여인네까지 불러들이려고 한다. 그런데 원작에서 하치조의 허랑방탕한 면모를 서술한 대목들이 「승주문답」에서는 대부분 삭제되었다. 또한 하치조는 주지승을 맡은 이후 에도 불경 한 번 보지 않는 불교에 무지한 인물이다. 이렇게 무지에서 비롯된 하치조의 언행이 웃음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술들 역시 번역 과정에서 삭제되었다.<sup>17)</sup> 결과적으로 「승주문답」에서는 하치조의 역할과 비중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하치조의 인물 변화 역시 원작 「곤약문답」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대목들이 삭제된 것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작품의 성격이 변화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4) 幸津國生, 「古典落語の人間像—「芝浜」を手がかりに」, 『社會福祉』第48号, 日本女子大學人間社會學部社會福祉學科, 2007, 125쪽.

15) “八 「門の前へは盛鹽か何んかしたら景氣は付くし……權 「不可ましねへ、藝者屋や待合ぢやねへからそんな事をしたつて駄目ですぞ」 八 「さうか、ぢやまア酒、肴でも取り寄せて景氣でも付けやうか/權 「何をおさま云ふだア、お寺では酒、肴なんて、そげな事は云はねへものだ” 「곤약문답」, 172쪽.

16) “兎に角酒、肴を取り寄せて一つ陽氣に三味線でも引くだね、門前の花屋のお光ぼうでも引張つて來りやア騒げるだらう” 「곤약문답」, 172쪽.

17) 범명을 묻는 나그네 선승에게 하치조는 “하 「스님 이름은……일연상인/승 「아니 일연상인은 보슈(房州) 고미나토(小湊) 분으로 일연종의 개조, ……하 「그런가, 그럼 흥법대사는 어떨까……승 「흥법대사라니요, 이것은 진연종의 개조인데 그 또한 선가가 따를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라고 엉뚱하면서도 무지한 대답을 함으로써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곤약문답」, 185쪽.

이와 같은 하치조의 인물상이 변화한 것과 관련하여 하인의 인물 조형이 바뀐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나그네 선승이 하치조에게 집요하게 신문답을 청하자 이에 하치조는 겁을 먹는데, 하인은 하치조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곤약문답」과 「승주문답」의 해당부분을 대비시켜 인용한다.

하인 “여기를 나가면 저희 고향으로 가지지요, 빈 절이 많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고 저는 하인을 하고, 거기로 선승이 문답하자고 쫓아오면 여기로 내뺀고, 여기로 선승이 쫓아오면 거기로 도망가고, 절 두 개를 맡는 게 좋겠구먼요”<sup>18)</sup>

하 「그것시조아요……아미타불이든지, 목탁이든지, 돈될스것은분탕질허여내파라버리고나와함씩다라나지아, 치만신임도오리도록나를돌 - 보아주섯스니종금이후로는신임을나의고향에데리고갈거시니격(곡)정마는것시 - 조스습지아」<sup>19)</sup>

「곤약문답」에서 하인은 하치조에게 자기 고향에 갈 것을 제안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하인의 대사 “빈 절이 많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고 저는 하인을 하면서, 선승이 거기로 쫓아오면 여기로 내뺀고, 여기로 선승이 쫓아오면 거기로 도망가고, 절 두 개를 맡는 게 좋겠구먼요.”에서는 진지함을 찾아볼 수 없다. 절박한 상황을 어디까지나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작은 곱케바나시(滑稽話)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이에 비해 「승주문답」에서는 하인이 궁지에 몰린 주지승에게 자기 고향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내용은 같으나, 후속 내용이 “치만신임도오리도록나를돌 - 보아주섯스니종금이후로는신임을나의고향에데리고갈거시니격(곡)정마는것시 - 조스습지아”로 바뀌어 원작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심각한 상황을 희화(戲化)하고 있는 원작의 하인에 비해, 「승주문답」의 하인은 주지승에게 오랫동안 자기를 보살펴준 것에 대해 은혜를 갚겠다며 위로하는 진지한 면모를 보여준다. 변안 과정에서 삽입된 하인의 대사는 원작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웃음과 해학을 본질로 하는 원작의 성격이 약화된 반면 「승주문답」에는 보은(報恩)을 강조하는 교육적인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다음으로 「곤약문답」과 「승주문답」의 배경이 변한 것 또한 중요한 변화이다. 「곤약문답」에서는 곤약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데, 작품의 배경도 대개 곤약의 명산지인 지금의 군마현(群馬縣) 야스나카(安中)나 하치오지로 설정되어 있다. 라쿠고는 청중에 따라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변성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지명 등의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 기본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산유테 유자의 구연 속기본에서는 이야기의 배경이 하치오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곤약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고 주인공을 곤약 장사로 설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곤약문답」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가미가타 라쿠고(上方落語)에서는 「모치야문답(餅屋問答)」으로 불린다. 그 이유는 곤약

18) “權 「此所を出たら、俺が國へお出でなせえませ、空寺が澤山あるだから、そこへお前さんが這入つて和尚になる、俺ア權助をしてね、そこへ問答が來たら此方の寺へ逃げて來るだ、此方の寺へ問答が來れば彼方の寺へ逃げて行くだ、つまり寺の掛持ちが好かんべえ” 「곤약문답」, 179쪽.

19) 「승주문답」, 16~17쪽.

의 주요 산지가 관동지방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곤약문답」이 관서지방에 이식되면서 ‘곤약’이 ‘모치’로 바뀐 것이다. 조선의 골계담 「승주문답」에서도 곤약이 전병(煎餅)으로 변화한 것은 조선의 사정에 맞게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도 바뀌었다. 작품의 주요 소재 곤약이 전병으로 바뀐에 따라 곤약장사 로쿠베는 떡 장사 권침지로 바뀐다. 「곤약문답」에 등장하는 나그네 선승이 선종 조동종(曹洞宗)의 대본산인 에치젠(越前) 에헤사(永平寺)의 승려로 설정되어 있는데 비해 「승주문답」에서는 조선에 실재하는 선종본찰(禪宗本刹) 동래 범어사의 승려로 바뀌었다. 이렇게 일본의 것을 적절하게 조선의 것으로 바꾼 경우와 달리, 조선에 없는 일본 고유의 풍습은 삭제되었다. 절의 머슴 곤스케와 주지승 하치조는 절의 분위기를 띄우자며 술판을 벌일 계획을 세우며 “곤 「먼저, 그 망자 춤이라는 것을 취 보이죠/하치 「술자리에 망자춤이라니 안되지/ 곤 「그럼 탕권장춤은……/하 「탕권장춤이라니 더더욱 안 되네”<sup>20)</sup>라는 대화를 나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망자춤(亡者踊り)”,<sup>21)</sup> “탕권장춤(湯灌場踊り)”<sup>22)</sup>과 같이 주로 절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일본의 고유한 풍습에 관한 묘사는 번역과정에서 삭제된다. 또한 원작자가 선종 승려 출신인 하야시야 쇼조인 만큼, 원작에는 ‘삼승삼계(三乘三界)’와 같은 불교 용어나 불교관련 일화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번역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 Ⅲ. 「승주문답」의 조선어와 일본어 본문 비교

『일선골계화』(「승주문답」)의 본문 구성이 일한대역(日韓對譯)으로 되어 있음은 상술한 대로이다. 「승주문답」의 일본어 본문과 조선어 본문은 서로 대응이 되게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다. 일본어 본문은 원작 「곤약문답」의 내용을 축소해서 중심 서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또한 원작에는 ‘越前國永平寺(에치젠 에헤사)’로 되어 있던 것이 「승주문답」의 일본어 본문에는 ‘東萊梵魚寺(동래범어사)’로 바뀌어 있고 이것에 대응하는 조선어 본문에는 ‘동리범어스’로 되어 있어서, 「승주문답」의 일본어 본문이 애초부터 조선어 대역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승주문답」의 일한대역은 먼저 일본어 역을 한자와 가타카나로 표기하고 그 왼쪽에 조선어 대역을 대응시

20) “權 「先づ、その亡者踊りといふのを踊ってみせるべえ、/八 「酒の場に亡者踊りなんか不可ねへ/權 「ぢや湯灌場踊りは……/八 「湯灌場踊りなんか、尚更不可ねへ” 「곤약문답」, 173~174쪽.

21) 망자춤(亡者踊り)은 봉오도리(盆踊り)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오봉(お盆)은, 망자의 영혼을 맞이하는 공양인데 그 때 추는 춤이 봉오도리(盆踊り)이다. 일본 각지의 봉오도리 중에서도 얼굴에 검은 복면을 하고 망자로 분장해서 추는 것을 망자춤(亡者踊り)이라고 하며 아키타현(秋田縣) 니시마모나이(西馬音内)의 망자춤이 유명하다.

일본전통문화진흥기구(JTCC), 「전통문화」, 2015,

<http://www.jtcc.or.jp/japanese-culture/?act=detail&id=10&p=0&c=19>(검색일 : 2015. 8.20).

22) ‘탕권(湯灌)은 납관하기 전에 사체를 더운 물로 씻는 것을 말한다. 에도시대에는 집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민가에서 탕권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 때문에 절 한구석에 ‘탕권장(湯灌場)’이라고 부르는 움막을 설치하고 탕권에 이용했다. ‘탕권장춤(湯灌場踊り)’은 이 탕권장에서 추는 춤이라는 뜻임.

高田裕史・古木優, 「落語あらすじ事典千字寄席」, 2006,

<http://senjiyose.cocolog-nifty.com/fullface/2006/07/o.html>(검색일 : 2015. 8.20).

키는 체재로 구성하였다. 일본어 본문의 한자에는 전부 후리가나를 붙였다. 원작 속기본이 대사와 지문으로 이루어져있는 것에 비해 「승주문답」의 본문은 대부분 등장인물의 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지문이 대부분 번역과정에서 삭제된 때문이라고 본문 2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승주문답」의 일부를 아래에 인용한다.

住、下「親方ノ言フヤウニ旨ク行クカ知ランデナア……  
 쥬, 하 「령감ㅎ는말디로잘마질지물나……  
 権、「大丈夫ダッテイフ事ヨ……ダガ此ノ姿デモ云ハネヘカラ、才前ノ袈裟モ  
 俺ニ皆ナオ貸シ……」ト權兵衛ハ手早く袈裟衣ヲ引ツカケマシテ  
 읍 으  
 권 「넙려업다ㅎ닛가……치만이모양대로는안될터이니, 즈내옷과가사를넉게모  
 다빌니게……」ㅎ고권침지는가사와웃슬웨입고<sup>23)</sup>

먼저 본문은 “住(주지승), 下(하인)”와 같은 식으로 발화 주체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는 대화의 시작부분에 ‘낫표(「)’)를 사용하여 대화문이 시작되는 것을 표시하였다. 대화가 끝나는 부분에 별도로 ‘낫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화문 다음에 지문이 이어져 대화문과 지문을 구분해야하는 경우에 한해 위 인용문에서 처럼 ‘낫표(」)’)를 사용하여 대화문과 지문을 구별하였다. 그러나 간혹 “……ト下男ガ立上リマスト(……ㅎ고 하인이이러선죽)”과 같이 대화문과 지문의 구분에 줄임표 ‘……’를 사용한 사례도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러한 문장 기호의 사용법이 완전히 정착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발화 주체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대화문을 구분하는 ‘낫표(「, 」)’의 사용법은 원작 속기본의 표기방식과 일치한다.

「승주문답」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본문 상단의 여백에 주석(註釋)을 달아놓은 점이다. 현공림은 「승주문답」 이전에도 일한대역 작품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일선어신소설’을 표방한 작품 「동각한매」와 「죽서루」가 그것이다.<sup>24)</sup> 일본어와 조선어를 대응시켜 병기한 이들 작품에도 현공림은 「승주문답」과 마찬가지로 본문 상단 여백에 주석을 붙여 놓았다. 이 주석들은 ‘兔角’에 대해서 ‘如何間’이라고 풀이한 것이나, ‘どん’을 “下輩에게 對한 稱號”라고 풀이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일본어 단어의 의미를 풀이해 놓은 것이다. 그에 비해서 「승주문답」의 주석은 훨씬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 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어려운 단어의 의미를 풀이해 놓은 경우.

般若湯 - 梵語般若의 轉 朝鮮僧謂 穀茶

行脚 - (修治 修行) 乞食旅行ㅎ면서修行ㅎ이라

23) 「승주문답」, 23~24쪽.

24) 일선어 소설에 관한 앞선 연구로는, 일선어 신소설 「동각한매」에 주목하여 라쿠고가 “개화기 소설 문법의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한 서재길의 연구(『日鮮語 新小説 東閣寒梅』와 한국 근대소설 문법의 형성 과정, 『비교문학』 31, 한국 비교문학회, 2003)를 꼽을 수 있다.

阿彌陀-無量數如來之名

如來-佛之最美稱, 乘如實之道來成正覺

如意-念珠, 一 二尺竹片의 端을 指爪形으로 作호야 背의 痒處를 搔호는 것(爪杖)

둘째, 일본어 고유의 표현을 설명한 것.

玄關-門의 入口

頼<sup>マウ</sup>-請, 附托

取次<sup>グ</sup>-紹介, 傳致, 傳喝

身<sup>ノ</sup>上<sup>ウヘ</sup>-신세, 신상

大丈夫-丈夫, 萬全, 堅固, 無危險

셋째, 문장 부호에 관한 설명.

“點은 中斷호고 他語로 轉호는 標”

넷째, 일본어 표현에 관한 풀이.

賭<sup>カケ</sup>バ減<sup>ヘ</sup>ル 노름<sup>ㄴ</sup>기호면감호는말

博奕<sup>バクチ</sup>ノ隱語<sup>インゴ</sup>ヲ「賭<sup>カケ</sup>ケバ減<sup>ヘ</sup>ルヲ遣<sup>ヤ</sup>ラウ」と云<sup>イ</sup>フ 노름의 變<sup>ㄴ</sup>기호면감호는 것으로

호자호는<sup>ㄴ</sup>니(노름호자와 同음)

噂<sup>ウハサ</sup>スル(소문<sup>ㄴ</sup>는다), 噂<sup>ㄴ</sup>스레바影<sup>ダ</sup>(말하면 그림<sup>ㄴ</sup>자라도)

위의 사례 중 넷째, 일본어 표현에 관한 풀이의 사례에서는 일본어 속담 “噂<sup>ㄴ</sup>스레바影<sup>ㄴ</sup>ダ(호랑이제말호면은 다드니)”의 의미를 단계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먼저 “噂<sup>ㄴ</sup>스ル”라는 동사의 기본형과 그 뜻을 설명하고 이어서 동사를 활용한 속담 “噂<sup>ㄴ</sup>스레바影<sup>ㄴ</sup>”의 뜻풀이를 해놓았다. 주석 중에는 위 분류의 첫째 사례로 “阿彌陀-無量數如來之名”과 같이 어려운 용어에 관한 설명을 덧붙인 사례도 있다. 그 밖에도 “點은 中斷호고 他語로 轉호는 標”와 같이 문장부호에 관해 설명해놓는 등 다양한 주석을 시도하였다. 이 각주들이 기본적으로 일본어 표현에 대한 풀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책의 번역과 구성이 일본어를 학습하는 조선어 독자를 상정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주석은 일한대역으로 구성된 본문의 양식과 더불어 『일선어골계화』가 여타의 소설 본문과 차별화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동시에 이 책이 언어교육을 염두에 둔 것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승주문답」의 본문은 원작의 내용을 일한대역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작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내용이 변형되기도 하였다. 또한 내용상 중요한 부분은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원작 「곤약문답」이 등장인물 간의 대화에 의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라쿠고 본연의 특성에 충실한 작품인 것에 비해, 「승주문답」은 대사 자체를 최대한 우리말에 가까운 일상어로 바꾸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승주문답」의 대사에 “噂スレバ影ダ(호랑이제말하면온다)”, “蕪辛棒ニ(어둔밤에홍두깨)”와 같은 속담류나 “有平糖ノ沢庵ガ(씩갓튼싱겨눈뎀)”과 같이 익살스런 표현이 삽입된 것은 그러한 의도가 반영된 사례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원작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이 가필되고, 거기에 작품에 대한 번역자의 독자적인 해석이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추가된 표현 및 내용의 변용(變容)은 작품의 성격이 변화한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승주문답」의 본문을 보면 “今日限り飯の食上ゲダナ”라는 일본어 문장을 “오늘썬밥먹겠고나”라는 직역에 가까운 표현과 “오늘이갑잡일이로구나”라는 자연스런 표현(의역) 두 가지로 번역해 놓은 경우가 있어서 흥미롭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일본어 표현을 직역과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 두 가지로 번역해 놓은 사례는 작품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래에 그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暫クオ控へ下サイ	계기시오
	잠간, 서슴거리시오
御住持ガ御帰リニナルマデハ	는동안이
	주장승임이도라오시기까지는
蕪辛棒ニ	뒤슈풀의방땡이로
	어둔밤에홍두깨도
何ノ構フモンカイ	슨
	무엇걱정이야

위와 같이 하나의 일본어 표현에 다양한 조선어 표현을 제시하는 것 또한 일본어를 학습하는 조선어 독자의 편의를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이 일본어에 대응하는 보다 적절한 조선어 표현을 찾아가는 번역의 과정 그 자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이상에서 검토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승주문답」의 주석을 비롯한 본문의 구성이나 표현이 일본어를 학습하는 조선어 독자를 고려한 언어 교육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번역 과정에서, 웃음을 본질로 하고 오락성이 강한 원작 라쿠고의 성격이 교육적인 성격의 일선어소설 계열의 작품으로 변화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 IV. 마무리 : 라쿠고의 변안과 변용의 의미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일선어소설 계열인 『일선골계화』(「승주문답」)를 새로 발굴하여 그 원전이 일본의 라쿠고 「곤약문답」이라는 것을 밝히고, 「곤약문답」과 「승주문답」을 대조, 비교하였다.

현재까지 그 존재가 알려진 일선어소설은 「동각한매」, 「죽서루」 정도로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근대문학사 초기에 출판된 단행본 후면이나 신문 소재 서적 광고를 통해 적지 않은 일선어소설이 발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서적 광고 등에 실려 있는 일선어소설 계열의 대부분이 『일선소담(日鮮笑談)』 『일선소화(笑話)』와 같이 제목에 우스운 이야기임을 표방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1912년에 출간된 일본어 보급용 학습서인 『일선어학교범(日鮮語學校範)』에서는 아예 ‘소화(笑話)’라는 제목으로 책의 일부분을 구성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선어소설 계열의 작품이나 『일선어학교범』 모두 소화(笑話)를 활용한 학습효과에 착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우스운 이야기를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공림이 『일선골계화』의 대본으로 웃음을 본질로 하는 라쿠고를 선택한 것도 대중적인 작품을 통해 독자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이와 같이 대중적인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근대 초기 번역과 변안할 작품을 선택할 때에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기도 했다.<sup>25)</sup> 원작인 「곤약문답」은 라쿠고 중에서도 골계에 중점을 둔 ‘곶케바나시’의 대표작이다. 현공림이 「곤약문답」에 주목한 것은 이러한 내용과 대중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승주문답」은 원작 「곤약문답」의 기본 줄거리를 골자로 하면서도 다소 변모된 양상을 보인다. 먼저 구성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구연자가 청중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의 도입부, 마쿠라가 삭제되었고 또한 본문에서도 구연자에 의한 지문이 대부분 삭제되었다. 이로써 「승주문답」은 구연 예능으로서의 특징이 약화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소설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준다. 마쿠라에서 구연자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며 청중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을 소설에 적용해 보면 작가가 작품 속에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근대적 글쓰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작가의 개입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해서 삭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에서 구연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지문이 삭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내용면에서 볼 때 원작에서 비중이 컸던 하치조에 관한 서술 및 대사가 「승주문답」에서는 대폭 삭제됨으로써 그 비중이 축소되었다. 원작에서 하치조는 절의 주지승이라는 직책에 도무지 걸맞지 않는 언행을 일삼음으로써 웃음을 유발하였다. 그런데 「승주문답」에서는 이러한 하치조와 관련된 서술들이 삭제됨으로써 작품에서 유머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승주문답」에는 궁지에 몰린 하치조에게 지금까지 보살펴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하인의 대사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변화는 원작 「곤약문답」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원작 「곤약문답」은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늘리

25) 변안소설과 대중성의 관계에 관해서는 김영민,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1890~1945)』, 소명출판, 2012, 365~368쪽을 참조.

고자 하는 마음에 노골적으로 마을 노인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가 하면, 절에서 일상적으로 음주를 일삼고 심지어 여인네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등 다분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락물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에 「승주문답」은 그러한 서술들이 대부분 삭제되고 원작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다소 교육적인 작품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작품의 변모는 일한대역이라는 「승주문답」의 독특한 표기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승주문답」의 표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주석의 처리 방식이다. 「승주문답」에서는 본문과는 구별되는 본문 상단 여백에 주석을 붙여 놓았다. 이러한 책의 체재는 『보통학교 국어독본』 등 당시의 교과서류의 체재와 아주 흡사하다.<sup>26)</sup> 주석은 일본어 고유의 표현 및 어려운 용어에 관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문장 부호에 관한 설명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본어 표현의 설명에서는 먼저 동사의 기본형을 제시하고 이어서 이를 응용한 표현의 의미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등 이 책이 어학 교육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일본어 표현을 직역과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 두 가지로 번역해 놓은 사례를 작품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언어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중심 서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축소하면서도 교육적인 내용의 서술이 추가된 것도 이 책이 교육 효과를 지향하여 엮인 것이라는 심증을 뒷받침한다. 책의 체재나 특징적인 표기 역시 일본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한대역이라는 특이한 형태로 표기되어 있는 일선어소설은 식민지 시기에만 존재한 특수한 형태의 소설이다. 조선어와 일본어를 병기한 일선어소설의 특성 및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사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다중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구연 예능인 라쿠고가 한국의 소설 형태를 띤 골계담으로 변안되는 특수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사례의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로 소설 중심의 원전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 번역 및 변안 문학 연구의 지평을 더욱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원전 자료]

- 현공림, 『日鮮滑稽話』, 대창서원/보급서원, 1915.  
 橘家圓喬 구연, 『円喬落語會』, 三芳屋, 1908.  
 桂派 구연, 松廼屋主人 편, 『桂派落語選』, 文樂堂書店, 1911.  
 三遊亭遊三 구연, 加藤由太郎 속기, 『遊三落語全集』, 三芳屋書店, 1915.

#### [단행본]

- 김영민,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1890~1945)』, 소명출판, 2012.

26)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민병찬, 「1912년 간행 『보통학교국어독본』의 편찬 배경에 대하여: 小田省吾의 「朝鮮總督府編纂教科書概要」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43,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8, 3~15쪽을 참조.

廣瀬和生, 『現代落語の基礎知識』, 集英社, 2010.

桃原 弘, 『志ん生古典落語5 富久』, 弘文出版, 2002.

延廣眞治, 『落語の鑑賞201』, 新書館, 2002.

### [연구논문 및 비평자료]

민병찬, 「1912년 간행 『보통학교국어독본』의 편찬 배경에 대하여: 小田省吾의 「朝鮮總督府編纂教科書概要」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43,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8.

서재길, 「『日鮮語 新小説 東閣寒梅』와 한국 근대소설 문법의 형성 과정」, 『비교문학』 31, 한국비교문학회, 2003.

野村雅昭, 「發話機能からみた落語の談話構造」,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日本文學演劇美術史日本語 日本文化』 42,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1996.

幸津國生, 「古典落語の人間像—「芝浜」を手がかりに」, 『社會福祉』 第48号, 日本女子大學人間社會學部社會福祉學科, 2007.

\* 이 논문은 2015년 8월 27일에 투고되어,  
2015년 9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10월 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10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Study on 『Ilseon-golgyehwa(日鮮滑稽話)』**
**- Consideration on Introduction of Original Text Discovery and Significance of Transformation -**

Noh, Hyekyoung\*

This research newly discovered Ilseoneo(日鮮語) novel 『Ilseon-golgyehwa』(『Seungjumundap』), determined the original text was Japanese Lakugo 『Gonyakmundap』, and considered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work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Gonyakmundap』 and 『Seungjumundap』. Ilseoneo novel was a special type novel that existed only during the colonial era, the biggest characteristic thereof was to write the same sentence in Cheosun language and Japanese language in parallel.

『Seungjumundap』 was based on the basic story of the original work 『Gonyakmundap』, however it showed difference in composition, content, and the basis of work, etc. While going through the translation process, 『Seungjumundap』 was weakened with its characteristic as narrate art, which prepared a shape close to a novel on the whole. In the aspect of content, while the humor of the original text was largely deleted, however it was changed to somewhat educational work by adding the content that emphasizes repaying grace.

Such change of work is closely related to the unique record method and system of the book, work 『Seungjumundap』, which was Japanese-Korean version. Notes of 『Seungjumundap』 show various aspects as the explanation of sentence sign, etc. including detailed explanation on Japanese expression and terms. Also, regarding the aspect of writing, it translated into two ways of more natural expressions along with direct translation on the same Japanese expression, etc. which was the attempt to consider the linguistic educational effec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could determine that 『Seungjumundap』 was translated and adapted focusing o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This research could verify the necessity of multiple views considering the educational aspect besides literary history context, in order to exact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and the essence of Ilseoneo novel.

**[Key Words]** Rakugo, Ilseoneo novel, Gonyakmundap, Seungjumundap, Hyun Kong-Ryeom(玄公廉), Translation, Adaptation, Humor

---

 \* Assistant Professor, Yonsei University

